

2024년 8월 23일 설교자 회의

본 문 : 로마서 5장 12-21절

제 목 : 인류의 리부트

대 지 : 1. 실패한 첫 아담
2.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문장 :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리부트 된 생명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1

리부트라는 단어는 원래 IT 분야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영화, 드라마, 게임등에서 기존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리부트가 필요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 출발한 이야기는 타락이라는 결과로 불행하게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 리부트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으로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과는 아담에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창조세계 역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고,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우리가 잘 알 듯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15절부터는 아담과 대조되는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죄를 범한 아담에 속하여 그 영향력 아래 있던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며 믿는 자들이 속한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실패한 첫 아담은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리부트된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주어지는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문 : 로마서 10장 9-17절

제 목 : 들음에서 믿음으로

대 지 : 1.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
2.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

한문장 :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1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2-13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이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이 만민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 그들의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 성별을 넘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2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부터 전파된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들음은 단순한 청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파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만들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서 준비된 들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 문 : 로마서 13장 8-10절

제 목 : 사랑의 빛을 갚는 삶

대 지 : 1. 사랑의 빛, 평생의 의무
2.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힘

한문장 :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바울은 세상의 다스리는 권세들에 대해 조언을 마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넘어가는데 '빛'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7절에서는 세상의 다스리는 권세들에 대해서 갚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반복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 갖고 있는 빛을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빛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으로 인해 생긴 빛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지고 가며 갚아야 할 이 빛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국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제한되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이 '남'은 우리와 가까운 이웃, 함께 믿는 성도 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이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진정한 사랑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바울이 12장에서 분명하게 했듯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바울은 9절에서 계명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관한 모든 계명이 결국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힘이며, 모든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서로를 향해 베풀어야 할 사랑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행하며 갚아 나갈 때, 사랑은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된 것들이 하나되게 하며, 상처를 감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빛진 이사랑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전하며 놀라운 사랑의 빛을 날마다 갚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 문 : 여호수아 2장 8-14절

제 목 : 두려움을 넘어서

대 지 : 1. 라합의 믿음

2. 믿음의 결단이 가져온 약속

한문장 :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계획에 동참합니다.

1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처럼 싯딤에서 두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에 도착한 정탐꾼들의 대한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유숙하던 집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들을 숨기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배반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라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군대를 진멸시키신 일, 아모리 두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입니다. 라합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한 이야기가 퍼져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자신들이 쥐고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라합의 고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는 말처럼, 그녀가 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

라합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라를 배반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녀와 함께있는 것은 단순히 정탐꾼일 뿐입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입니다. 이 믿음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돌아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들려온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의 보존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까지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였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강하게 붙잡고 신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쁜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게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고 : NICNT 로마서, HOW주석 로마서, 묵상과 설교, 엑스포지멘터리 여호수아